

개신교인, 출석교회에서 기후환경 캠페인 한다면 ‘참여 의향 있다’ 84%!

기후 위기, 지구 온도, ESG,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등... 기후환경 관련 단어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현재도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지구가 아파하는 증상이란 걸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약 1년 전 넘버즈 106호에서도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데 체감상으로는 1년 새 기후환경 관련 뉴스와 소식들이 더 많아진 느낌이다. 그만큼 기후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지는 것 같다.

기후환경에 대한 실제적 인식은 어떻게 또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나아가 창조 신앙 관점에서 개신교인이 그리고 교회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목회자, 개신교인, 일반국민 각각을 대상으로 ‘기후환경에 대한 인식과 교회의 역할에 대한 조사’를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에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대부분(84%)은 출석교회에서 기후환경 실천 캠페인을 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교회가 나서면 기후환경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결과들이 곳곳에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150호>에서는 이번 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교회가 기후환경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근본적 사명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에 대한 인식과 교회의 역할에 대한 조사

- 목회자, 개신교인, 일반국민 대상 -

본 조사는 지난 6월 20일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에서 개최한 「탄소중립 창조회복교회 만들기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목회자/개신교인/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후환경 관련 연구 프로젝트로서 넘버즈에서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주요 결과들을 정리해 보았다.

조사 개요

구분	개신교인 조사	일반국민 조사	목회자 조사
•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한국교회 담임목사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리스트를 활용한 모바일 조사(휴대전화로 URL발송)
•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총 1,000명 (유효 표본)	총 505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른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및 연령 가중치 적용*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편의 추출
•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해당 없음(편의 추출은 표본 오차 산출하지 않음)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2022년 4월 27일 ~ 6월 3일		
• 조사 의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 조사 협력 후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방향 기획 및 설문지 설계에 교계 기후환경 전문기관인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과 협업함 • 거룩한빛광성교회와 (주)벽산에서 후원함 		

* 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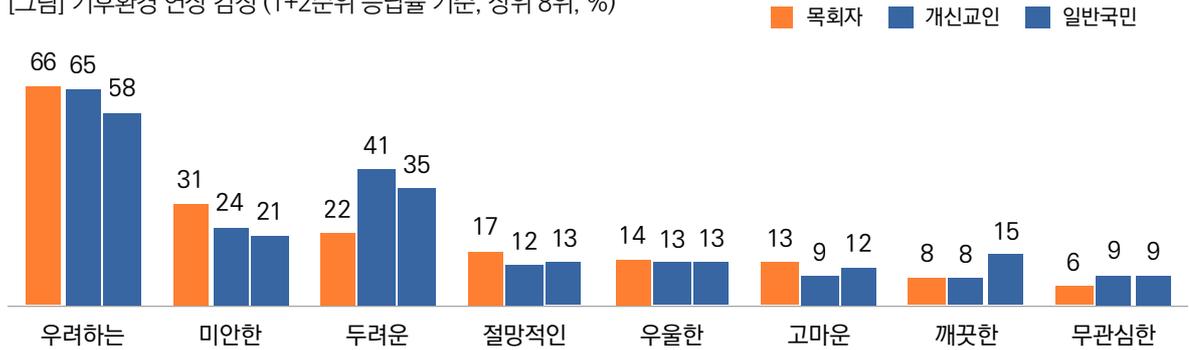
- 1) 2015 인구센서스 기준 개신교인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 2) 조사 완료 후 한국갤럽의 종교분포 자료를 기준으로 연령별 가중치 적용
: 2021년 3월, 7월, 8월, 9월, 11월 전국 면접조사 실시 결과를 취합한 자료이며, 총 6003표본의 응답 결과임

01

기후환경에 대한 감정, '우려'와 '미안함'!

- ▶ '기후' 또는 '환경'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물었더니 목회자, 개신교인, 일반국민 세 그룹 모두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두려운', '미안한' 등의 부정적 감정이 상위에 나타났다. 너나할 것 없이 모두가 기후환경에 대해 염려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 개신교인은 일반국민보다 '우려하는', '두려운' 등의 감정이 더 높았고, 일반국민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고마운' 등의 긍정적 감정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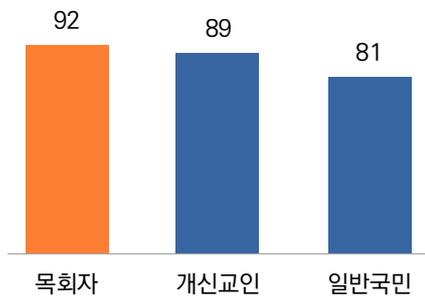
[그림] 기후환경 연상 감정 (1+2순위 응답률 기준, 상위 8위, %)



◎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도, 목회자 > 개신교인 > 일반국민 순으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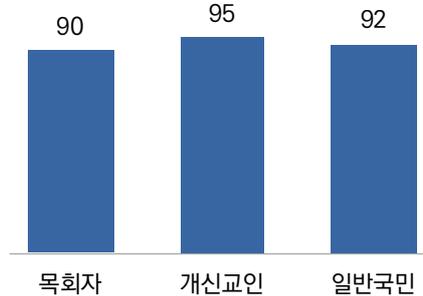
- ▶ 평소 기후환경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목회자, 개신교인, 일반국민 세 그룹 모두에서 80% 이상이 '관심있다'(매우+약간)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 ▶ 특이점은 목회자와 개신교인의 관심도가 일반국민보다 높다는 것이다.
- ▶ 기후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매우+약간 영향 미침)는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세 그룹 모두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 전반적으로 기후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삶에 큰 영향을 미칠거라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도 (매우+약간 있다, %)



*4점 척도 질문임

[그림] 기후환경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약간 영향 미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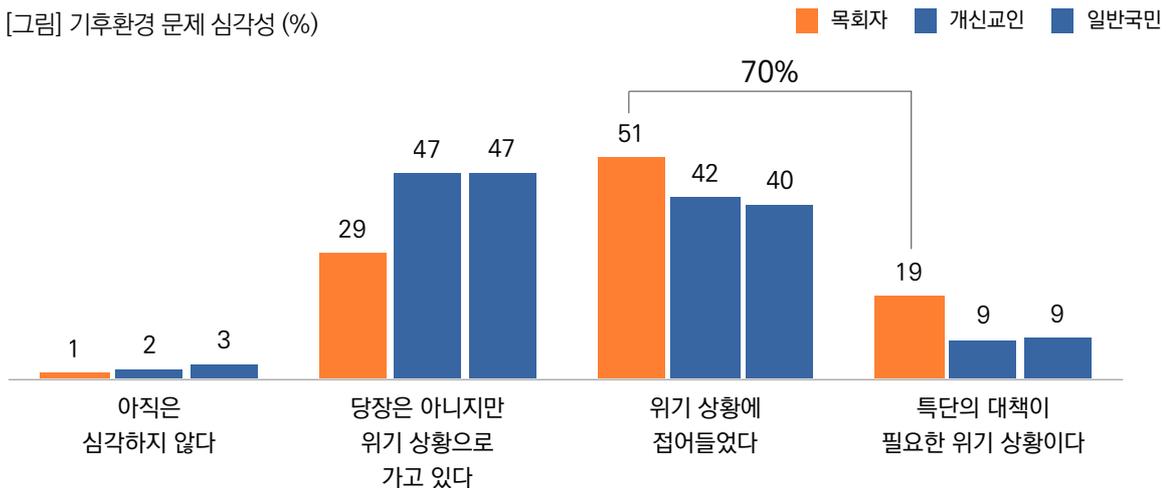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임

02

목회자의 기후환경 문제 인식, '위기 상황이다' 70%!

- ▶ 기후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개신교인 및 일반국민은 절반 가량이 '당장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목회자는 절반이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다', 19%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라고 응답해 70%가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 ▶ 목회자의 경우 49세 이하의 젊은 목사에게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 ▶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접하고 있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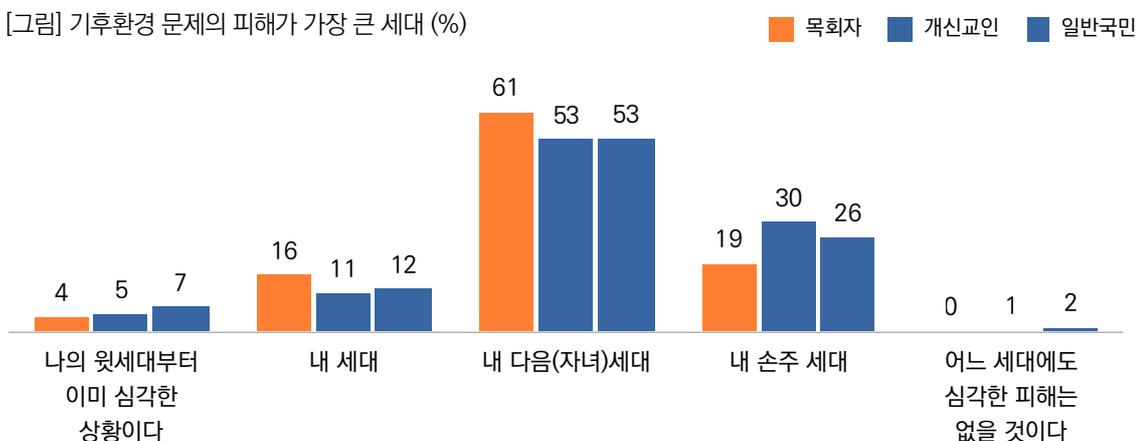
[그림] 기후환경 문제 심각성 (%)



◎ 그러나, 기후환경 문제의 가장 큰 피해, '나' 보다는 '다음 세대'에...

- ▶ 기후환경 문제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로 세 그룹 모두 '나' 보다는 '내 다음 세대'를 더 많이 꼽았다. 기후환경이 위기 상황이지만 현재의 내가 사는 당대에는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엇보인다.
- ▶ 이 역시 관심 대비 절박감이 낮은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위기와 피해 시점의 불일치'가 기후환경 실천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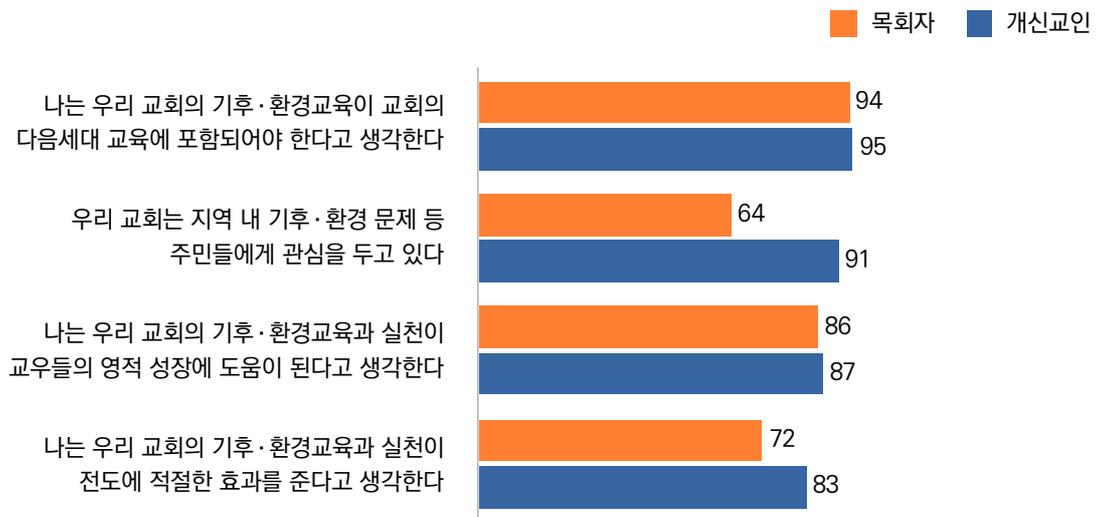
[그림] 기후환경 문제의 피해가 가장 큰 세대 (%)



◎ 교회의 다음세대 교육, ‘기후환경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95%

- ▶ 앞서 기후환경 피해가 가장 큰 세대는 ‘내 다음 세대’란 응답률이 높았는데, 이와 연장선상에서 기후 환경 교육이나 캠페인 경험이 있는 개신교인과 목회자의 경우 ‘교회의 기후환경 교육이 다음세대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아, 다음세대에게 기후환경 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 ▶ 또한 교회의 기후환경 교육과 실천이 교인의 영적 성장 그리고 전도에까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한편으로, ‘우리 교회가 지역내 기후환경 문제 등 주민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견에 개신교인의 91%가 동의하고 있어, 교회의 사회적 역할로서 기후환경 관련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교회와 기후 환경에 대한 의견 (기후환경 교육 또는 캠페인 경험 있는 개신교인과 목회자, 매우+약간 그렇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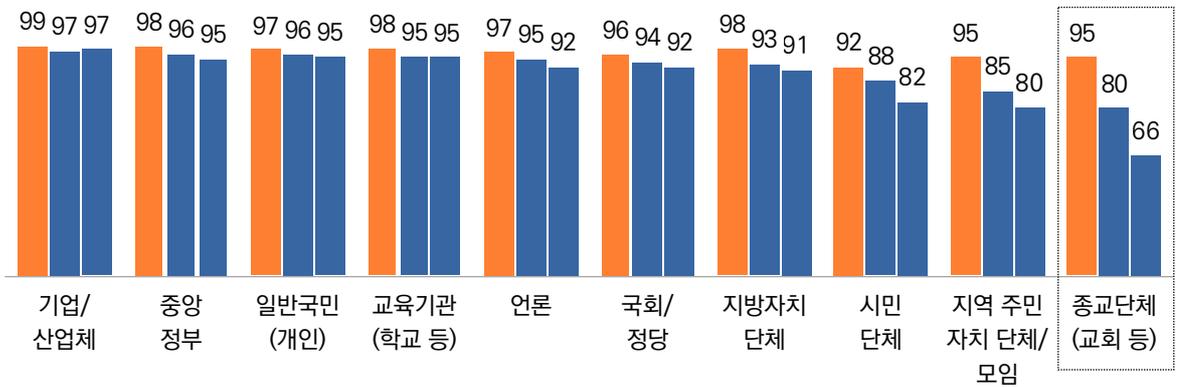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임

03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주체, 종교단체 꼴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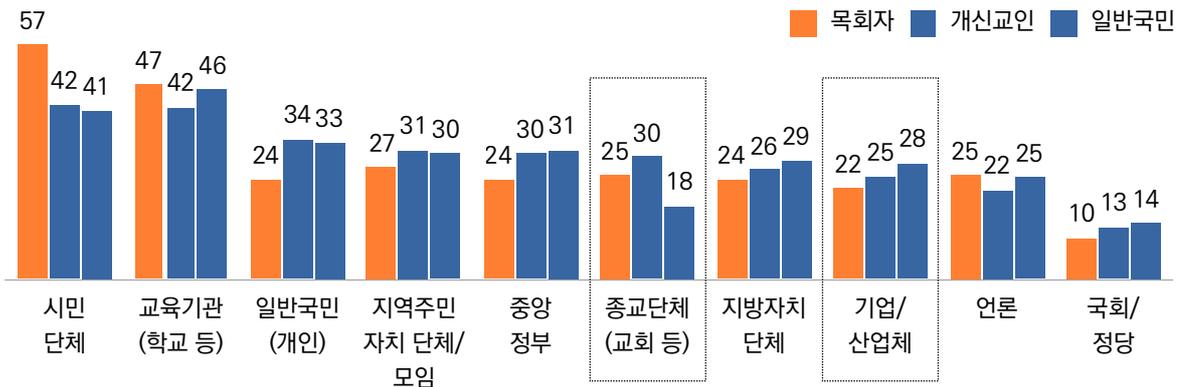
-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주체를 질문한 결과, 3개 그룹 모두 10개 주체 중 '기업/산업체'를 1위로 꼽았고, '종교단체'는 개신교인과 일반 국민 그룹에서 꼴찌였다.
- 반면,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잘 하고 있는 주체에서는 '기업/산업체'가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기업의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종교단체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하다'는 비율을 보면, 세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목회자(95%)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개신교인(80%), 일반 국민(66%) 순이었다. 그만큼 일반국민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종교에 기대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평가에 있어서도 '종교단체'는 개신교인은 30%, 일반 국민 18%가 잘하고 있다(매우+잘하고 있는 편)고 답해 10개 조사 항목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림] 각 주체별 기후·환경 문제 해결의 중요도 ('약간+매우 중요하다' 비율, %) ■ 목회자 ■ 개신교인 ■ 일반국민



*4점 척도 질문임

[그림] 각 주체별 기후·환경 문제 해결 노력 평가 ('매우+약간 잘하고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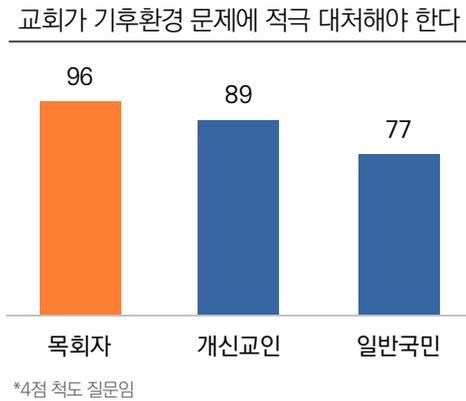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임

◎ 일반국민, '교회가 기후환경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77%

- ▶ 앞에서 기후환경 문제 해결 주체로서 종교단체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교회만을 대상으로 '교회가 기후환경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물은 결과, 목회자, 개신교인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목회자의 인식(96%)이 높아 목회자 교육을 통해 실천 유도 방법을 공유한다면 개교회별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 개신교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일반국민들도 교회의 기후환경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77%)를 내리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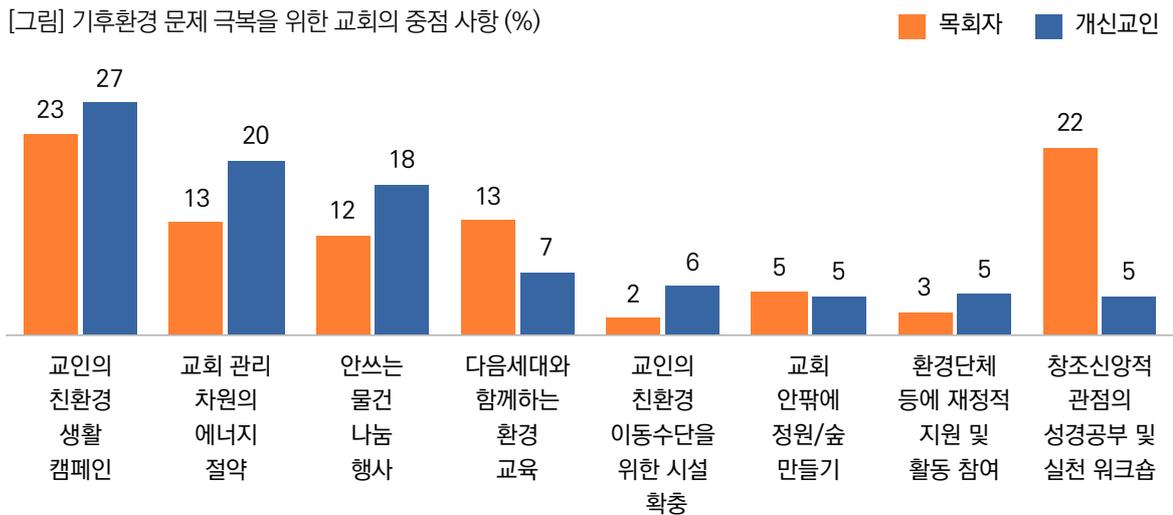
[그림] 교회의 기후환경 활동에 대한 의견 (매우+약간 그렇다, %)



◎ 기후 환경 문제 극복 중점 사항, 목회자/개신교인 '친환경 생활 캠페인' 1위로 꼽아

- ▶ 그렇다면 기후 환경 문제 극복을 위해 교회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까? 개신교인은 '친환경 생활 캠페인', '교회 차원의 에너지 절약', '안쓰는 물건 나눔' 등 일상생활 속 행동 중심으로 높게 응답했으며, '창조 신앙적 관점의 성경공부', '기후환경을 위한 예배/기도회' 등 신앙 관련 항목 응답률은 낮았다.
- ▶ 반면, 목회자는 '생활 캠페인'과 '창조신앙적 관점에서 본 성경공부'를 가장 높게 꼽았다.

[그림] 기후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교회의 중점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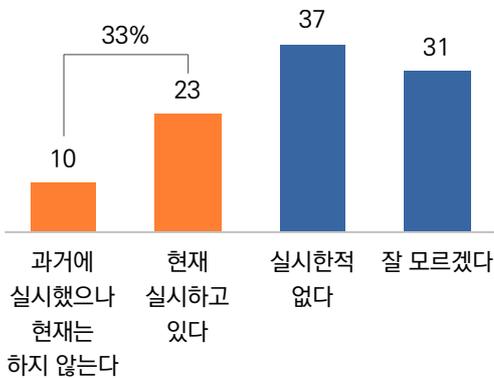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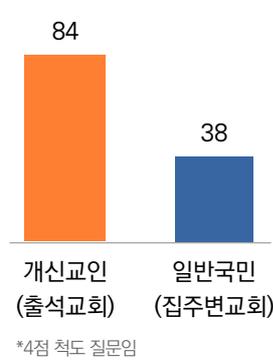
개신교인, 출석교회에서 기후환경 캠페인 한다면 '참여 의향 있다' 84%!

- ▶ 개신교인(교회출석자)을 대상으로 출석교회에서 기후환경 교육 또는 실천 캠페인을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개신교인은 33%가 '한 적 있다'(과거+현재)고 응답해, 교회 내 기후환경을 위한 실천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앞으로 출석교회에서 기후환경 실천 캠페인을 할 경우 참여하겠냐는 질문에 개신교인 대부분(84%)이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 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집 주변 교회가 기후환경 캠페인을 한다면 참여하겠냐는 질문에 38%가 참여의향을 나타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일반국민의 개신교 신뢰도(18%, 2022년 4월, 목회데이터연구소)를 감안할 때 2배 이상 높은 호응도이다. 현재는 다소 미비한 교회의 기후환경 활동을 늘린다면 개신교인뿐 아니라 일반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다.

[그림] 출석교회의 기후환경 교육 및 실천 캠페인 실시 여부 (교회출석 개신교인, %)



[그림] 출석교회/주변교회의 기후환경 실천 캠페인 참여 의향 (적극적+대체적 참여할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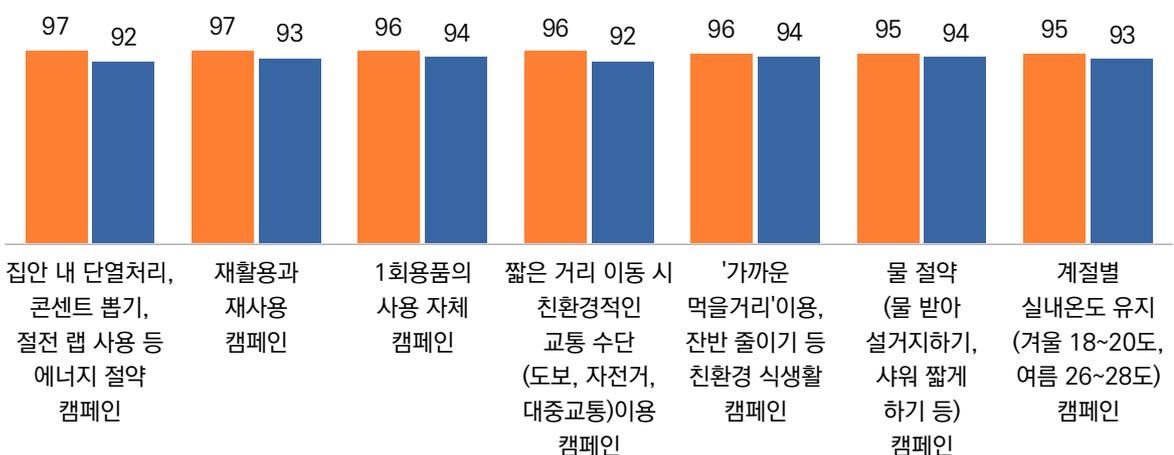


◎ 참여하고 싶은 기후환경 캠페인

→ '에너지 절약', '재활용/재사용', '일회용품 자제 캠페인'!

- ▶ 일반국민도 교회의 기후환경 캠페인 참여 의향률(38%)이 적지 않은 가운데, 출석교회나 주변 교회에서 기후환경 실천 캠페인을 한다면 참여하고 싶은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집안 내 에너지 절약', '재활용/재사용', '일회용품 자제', '단거리 친환경 교통 이용' 등이 90% 이상의 참여 의향률을 보였다.

[그림] 출석교회/주위 교회 캠페인 중 참여하고 싶은 것 (적극적+대체적 참여할 것,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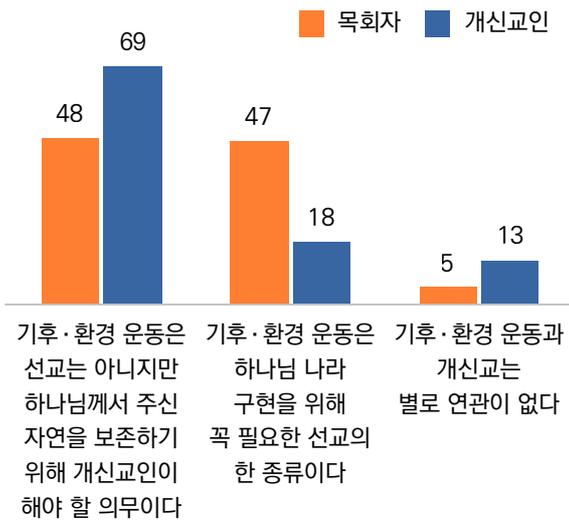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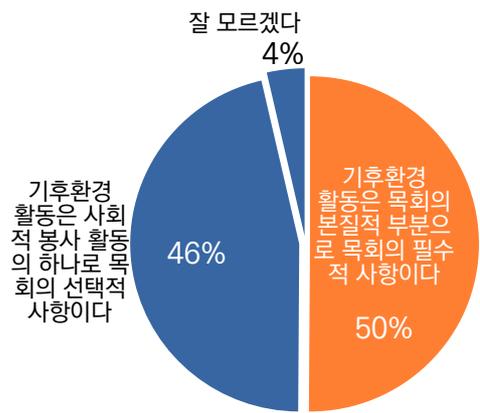
목회자, '기후환경운동은 꼭 필요한 선교의 한 종류이다' 47%!

- 기후환경과 선교에 대한 인식에서는, 개신교인은 18%만이 '꼭 필요한 선교의 종류'라고 응답한 반면, 목회자는 47%가 '꼭 필요한 선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목회의 본질적 부분'이라는 인식도 50%로 나타났다.
-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 개신교인은 신앙과는 별개의 일반적 관점으로, 목회자는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신교인에게 선교적 관점으로 기후환경을 보고 근본적 문제 인식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교회의 기후환경 운동과 선교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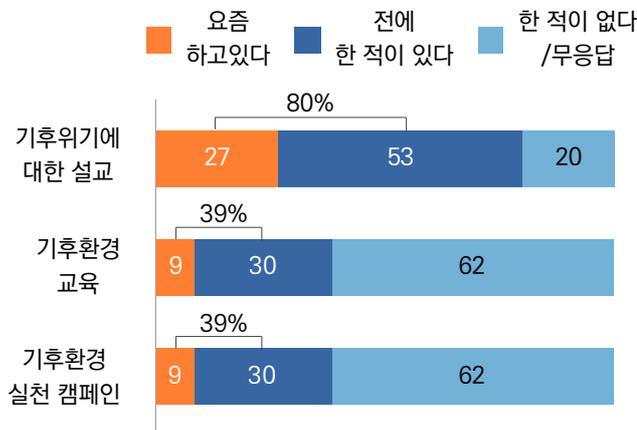
[그림] 기후환경 활동과 목회와의 관계 인식 (목회자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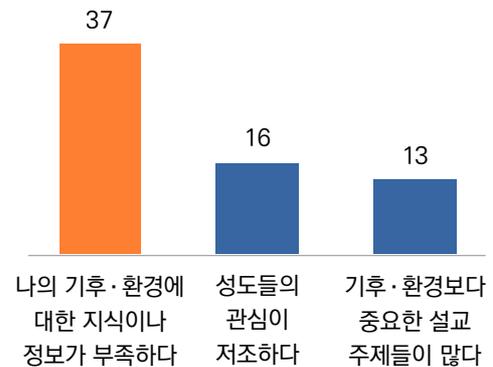
◎ 목회자, '기후환경과 관련한 설교 요즘 하고 있다' 27%!

- 요즘 기후환경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목회자에게 질문했다. 그 결과 목회자 5명 중 4명은 기후환경에 대한 설교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기후환경 설교를 하고 있는 경우는 27%로 나타났다.
- 기후환경 관련 설교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나의 기후환경에 대한 지식/정보 부족'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37%), 기후환경 교육/실천 캠페인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떤 내용으로 해야할지 모르겠다'가 1위로 나타났다. 기후환경 관련한 목회 활동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가 없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기후환경에 대한 활동 여부 (목회자 대상, %)



[그림] 기후환경에 대한 설교 하지 않은 이유 (기후환경 설교 경험 없는 목회자,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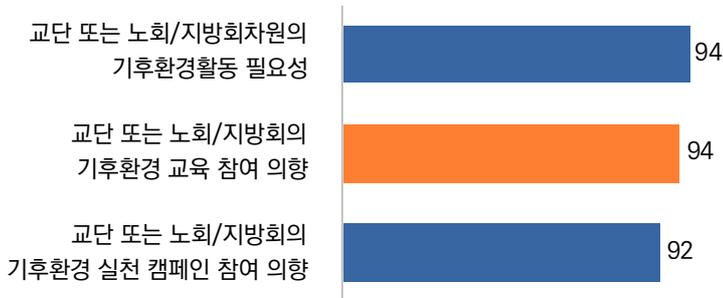


06

목회자, 노회/지방회 차원의 기후환경 교육시 '참여하겠다' 94%!

- ▶ 목회자들은 매우 높은 비율로 교단 또는 노회/지방회 차원의 기후환경 활동 필요성을 인지(94%)하고 있었으며, 교육 참여 의향 94%, 실천 캠페인 참여 의향 92%로 참여 의향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교단 또는 노회/지방회의 기후환경 활동 필요성 및 참여 의향 (목회자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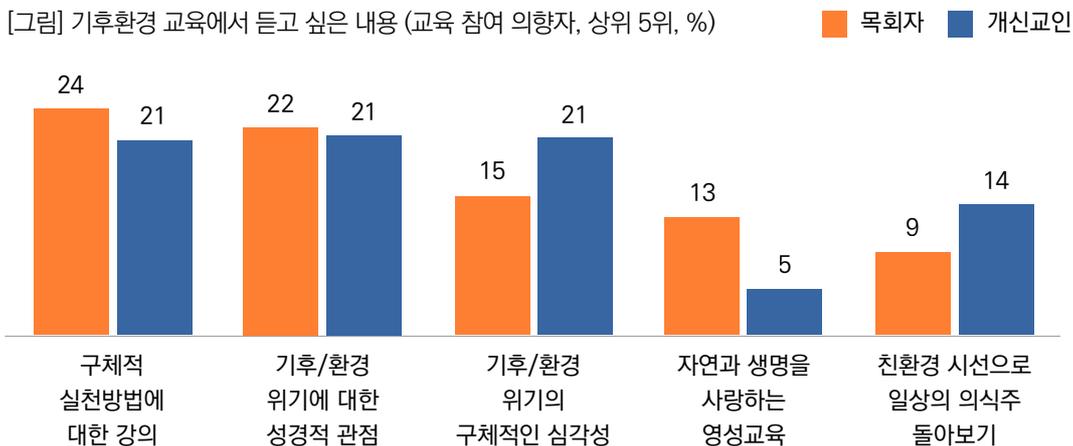
*각각 4점 척도 문항으로 '매우+약간 있다'의 비율임

◎ 기후환경 교육에서 듣고 싶은 것은?

목회자: '구체적 실천방법', 성도: '기후 위기에 대한 성경적 관점'

- ▶ 목회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교육 내용은 '구체적 실천방법'과 '기후환경에 대한 성경적 관점'으로 설교 및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 위주의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 ▶ 성도들의 경우 '기후위기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기후/환경 위기의 구체적인 심각성'을 가장 많이 꼽았고, 특별히 20대 청년층은 '기후위기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한 니즈가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기후환경 교육에서 듣고 싶은 내용 (교육 참여 의향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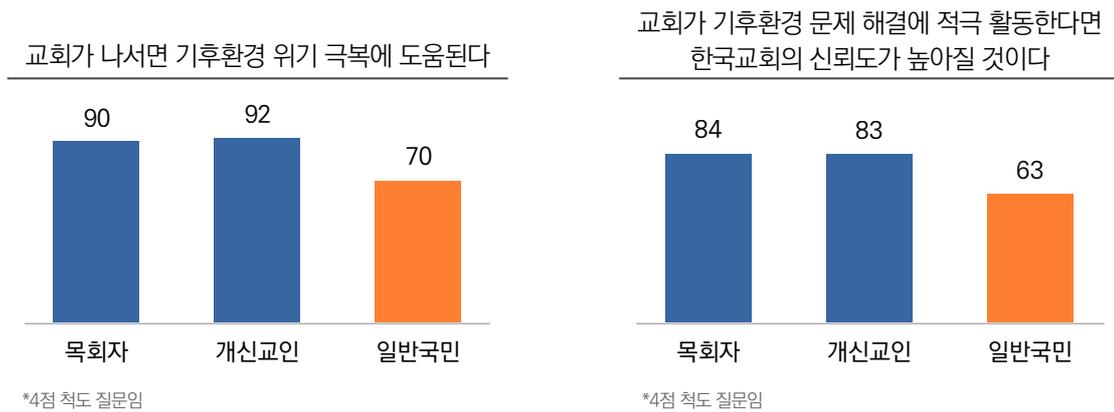


07

일반국민 5명 중 3명, '교회가 적극적으로 기후환경 활동하면 한국교회 신뢰도 높아질 것'!

- ▶ 교회가 나서면 기후환경 위기 극복에 도움된다는 인식이 매우 높았으며(목회자 90%, 개신교인 92%, 일반국민 70%), 교회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하고 활동한다면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목회자 84%, 개신교인 83%, 일반국민 63%로 나타났다.
- ▶ 한국교회의 기후환경 대처 활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존하는 근본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도 부합하며, 나아가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교회의 기후환경 활동에 대한 의견 (매우+약간 그렇다, %)



시사점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주목할만한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이 개신교인이 일반 국민보다 높다는 점이다.(4쪽)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창조 신앙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세계를 다스릴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러한 위임이 산업화 이후에 인간의 욕망 달성을 위해 세상에 대한 '이용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자연 훼손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하였다. 하지만 지구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하나님의 위임은 '이용할 권리'가 아니라 '회복하고 보존할 책임'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일반국민보다 개신교인이 더 높은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인 가운데서도 목회자가 일반 개신교인, 즉 성도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둘째, 기후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박감은 떨어진다는 점이다.(5쪽) 기후환경의 피해가 내 세대에 가장 크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0%대 초반에 불과한데 다음 세대에서 가장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50%를 넘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절박감이 떨어지면 관심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구 환경이 거대하고 정밀한 체계로 움직이므로 변화가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대처하면 시간적으로 늦다. 위기가 오기 전에, 아니면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회복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셋째는 기후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실천 행동이 일상 생활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8쪽, 9쪽) 기후환경 오염의 주범은 탄소인데, 탄소 배출은 개인이나 가정에서 보다는 기업 활동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개인과 가정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전기를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없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후환경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

다. 기후환경 문제를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한다면 그것의 해결책도 개인적 생활 실천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사회 운동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목회자들은 기후환경 문제를 선교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10쪽) 선교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받는 영역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의해 '타락'되었으므로 이 '타락한' 기후환경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시키는 것이 곧 선교라는 인식이 성도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럴 때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 사회가 교회에 기대하는 역할(일반 국민, '교회가 기후환경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77%)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다섯째, 기후환경에 대한 대처를 통해 교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12쪽) 지난 4월 국민일보가 기독교전문 조사기관인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18%로 2021년 21%보다 더 낮아졌다. 개신교인 인구가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성인기준, 2021년, 한국갤럽)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교회는 비개신교인에게는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비개신교인들 3명 가운데 1명 이상(38%)은 교회가 기후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면 이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9쪽) 비개신교인들로부터 경원시되는 교회가 기후환경 문제로 사회에 접근한다면 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이 곧 교회 신뢰도 제고로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 문제 대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창조 신앙과 선교적 마인드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은 지구 생태계를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통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회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